

## 금강대학교 주최 제1회 국제학술회의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금강대학교가 올해 개교 1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긴 숙성 기간을 요하는 교육 분야에서 이처럼 길지 않은 기간에 금강대학교는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학생 수 대비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과 공직자를 배출한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동경대와 와세다대, 코넬대와 펜실바니아대 등에서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여 교수로 혹은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대한불교 천태종단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종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 고자 합니다.

금강대학교는 인문사회중심의 기숙형 대학으로서 서구의 명문 ‘리버럴 아츠 대학’들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불교인문학부’와 ‘공공정책학부’를 중심으로 소수정예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불교인문학부의 경우, ‘불교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버드대 학과의 공동연구와 저술을 포함한 국제적인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 학부의 경우는 그동안 ‘사회복지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것에서, 금년에 이를 ‘공공정책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강대학교는 이 두 부설 연구기관을 통해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공정책연구원 설립을 기념하여 금강대학교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후원 하에 오늘 제1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공공정책과 인성교육”이 주제입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21세기 중반으로 나아가면서 인류는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추세에 뒤지지 않도록, 더 나아가 이를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쏠쏠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학기술의 발전은 진정한 의미의 인류문명 진보에 기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려면 과학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있어서 인문사회과학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학술회의에서 이에 관한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전개될 것을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공공정책연구원의 제1회 국제학술회의를 격려와 축하, 기조발제, 그리고 논문 발표·토론·사회를 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공직과 학계 등에서 쌓아 오신 경륜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공공정책연구원을 도와주고 계신 연구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인원 제한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후일의 기회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30.

금강대학교 총장 정용덕